

# “고흥으로 귀농귀촌, 3개월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 귀농 전 ‘전남에서 살아보기’ 3월 말까지 참가자 모집 4월부터 1기 프로그램 진행...‘그린대로’ 통해 신청 가능

고흥군은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에 선정된 금산면 상하촌마을과 남양면 선정마을이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농촌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하촌마을과 선정마을은 3월 말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4월부터 1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도시민은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를 통해 지역 여건, 마을별 숙박시설, 운영 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마을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해 금산 상하촌마을 전남에서 살아보기에 참가한 19명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9명은 실제 고흥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역시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직접 고흥에서 살아보고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농어업 배움터 연수생을 3월 8일까지 접수, 선도 농어가 1개소당 연수생



10명을 매칭해 작목별 재배 기술 및 새우 양식 노하우 등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2024 귀농어 귀촌 농어업 배움터’를 운영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2024년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개최...12~15일까지

보성군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24년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농민기를 앞둔 사업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로 추진하며 주택개량의 사업의 절차, 유의 사항, 사업 시행 지침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2024년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연 2%)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은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 이내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20년간 분할 상환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복순기자

## 여수미래혁신지구 내 ‘국내유일’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 개소

### 석유화학 공정·소재 개발 실증 지원...여수산단 경쟁력 강화·친환경 산단으로의 전환 ‘기대’



여수시가 미래혁신지구 내 국내유일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를 개소하고 탄소중립기술 상용화의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 ‘한국화학연구원 실증센터’는 1차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2차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저탄소 고부가 산업공정에 필요한 촉매개발 ▲CCU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제품 제작지원 ▲탄소중립 대응기술개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1차 사업으로 구축된 이번 실증센터는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83억 원이 투입돼 건축면적 2,501㎡에 총 2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석유화학 공정·소재의 실증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험, 분석 등 23종의 촉매 제조 핵심 장비를 갖추고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증 및 기술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현재 연구원 등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오는 2030년까지 40명까지 인력을 확충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전남도와 한국화학연구원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석유화학 기초유분 제조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나아가 여수국가산단단지의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6일 미래혁신지구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우리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여수산단을 저탄소·친환경 산단으로 전환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가 산단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론,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광양시, 안정적인 하수처리 위해 시설개선 적극 나서

#### 시설물 안전점검...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등

광양시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올해도 시설개선 노력에 힘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양시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은 5곳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과 매년 시설 점검을 통해 즉시 보수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시설개선사업비는 42억7700만원이며, 그중 광양하수처리장의 생활하수에 유입되는 찌꺼기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 조목스크린 교체비 3억5천만원, 태인폐수처리장 생활물방조 송풍기 교체비 2억원, 이 외 각종 시설물 수선 유지비로 37억2700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시는 광양읍과 중마동의 늘어나는 하수 유입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앙처리장 5천톤(2025년 준공 예정)과 광양하수처리장 6천톤(2026년 준공 예정)을 증설 추진하고 있다. 증설이 이뤄지면 중앙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2만5천톤에서 3만톤으로, 광양하수처리장은 2만4천톤에서 3만톤으로 처리하게 돼 방류수 수질개선과 하수처리도 여유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박순옥 하수처리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공공하수를 적정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매일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시범운영

### 순천매일 가공산업 발전확대 기틀 마련

순천시는 순천매일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된 매일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승주읍 승주로 538-8)을 매일농가 대상으로 순천매일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에서 9월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한다. 가공시설에서는 매일 원물을 세척 및 탈수, 씨분리, 절단 등의 기본적인 가공부터 절임·배합기, 건조기, 누름기 등을 활용해 매실청 및

당절임, 건과 등의 가공식품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금속검출기 및 포장기를 활용해 완전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다. 저온저장 시설에서는 매실농가의 원물 및 가공품들을 신청순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과수특작팀(061-749-8876)으로 하면 된다.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은 “대부분 매실농가의 원물 생산 및 판매로 국한된 산업을 향후

매일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2·3차 산업으로의 발전 확대 기틀을 마련해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체계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식품가공의 육성·지원, 전문 가공업체 시설 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순천시 매일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